



## 내년에도 3가 FMD 백신 공급돼야

### ✦ 농식품부 주재 '12년 공급계획 수립 협의회서 전문가들 제안 국내 분리주 항원은 개발 완료되면 협의 통해 사용여부 결정

내년 공급될 FMD 백신에도 O형, A형, Asia1형 등 3가지 항원이 담겨져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목소리다. 3가 FMD 백신은 올 하반기부터 일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분리주 항원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2012년 FMD 백신 공급계획 수립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FMD 발생동향을 살펴본 뒤, 국내 FMD 백신 접종현황을 두루 점검했다. 이어 내년 공급할 FMD 백신을 두고, 최적합 항원 유형과 항원 함량에 대해 기술검토를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홍콩 등 주변국에서 O형, A형, Asia1형 등 여러 혈청형 FMD가 지속발생하고 있다고 진단, 현재 O형과 함께 A형, Asia1형을 포함한 3가 백신 사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O형의 경우, O4625, O Manisa, O Korea 항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O4625은 국내에서 사용 예가 없지만, 항원 연관성을 고려할 때 국내 상황에 보다 넓은 범위 방어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O Manisa는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며, 야외에서 효용성을 입증했다고 파악했다. O Korea는 맞춤형이라고 판단하지만, 아직 개발과정이어서 개발이 완료되면,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A형은 A Malaysia 또는 A 22 Iraq를 제안했다. A Malaysia는 OIE에서 동남아시아, 중국에 추천하고 백신 주이며, A 22 Iraq는 OIE 항원뱅크 권고 백신주이다.

Asia1형에서는 Asia1 Shamir를 추천했다. 항원함량의 경우, 돼지에서 항체형성률이 낮고, 주변국 FMD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6PD50 이상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8월 29일



## 축산물 가공 기준·규격 명확화...생산현장 혼선 없앤다

### ✦ 검역검사본부, 고시 일부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생산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문회의와 축산물위생심의회(기준규격분과위)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축산물의 식품첨가물 검사대상인 보존료와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 성분을 명확히 제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식용란의 권장 보관·유통기준인 냉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온도범위(0~15°C)를 내놓았다.

유통기한 설정 대상 영업자에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를 추가했고,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에 실패한 알을 합류시켰다.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해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를 제외품목에서 삭제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8월 29일



## 관납, 오시소만은 아니다

### ■ 기자수첩

관납. 관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이다. 공공재 성격을 띠 경우, 종종 관납을 통해 물품조달이 이뤄진다.

동물약품 시장도 관납비중이 꽤 높다. 소독제를 비롯해 각종 환경개선제, 방역백신 등이 주요 관납품목이다. 업체로서는 관납이 매력적이다. 우선 한꺼번에 들어가는 공급물량이 많다.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 수단이다. 그리고, 납품기관을 믿을 수 있으니 미수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는 유통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 영업도 상대적으로 편하다. 특정고객에게 집중하면 된다. 그렇지만, 관납은 독을 품고 있다. 관납사업에 포함되면, 갑자기 시장파이가 커진다. 불과 1억~2억원하던 시장이 1년새 5억~10억원으로 불어난다. 기존 업체에서 보면, 당장에야 먹을 것이 많아만세를 부를 만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업체 수가 늘어나고, 소수 정예부대에서 다수 경쟁체제로 바뀐다. 내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문업체 설자리는 조금씩 오그라들고, 어느새 대형기업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된다. 업체 수가 늘어나면, 가격경쟁으로 치닫게 되고, 마진을 하락을 불러오게 된다. 그렇다가, 관납방침이 취소되더라도 한다면, 시장전체가 휘청거리게 된다. 특히 관납은 우수제품 고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격경쟁 위주로 전개되다보니 애써 개발한 신제품이 날개를 펴지 못하고 사그러든다.

신제품을 알리려고, 이리저리 틈을 파보기는 하지만, 두손 들기 일쑤다. 결국, 신제품 개발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아예 개발을 포기한 품목도 수도룩하다. 후발주자 역시, 관납시장이 영 내키지 않는다. 가격이 뒤틀렸던, 신기술이 뒤틀린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또 다시 가을문



턱에 오게 되니, 내년 관납을 두고, 이런저런 오가는 말이 많은가 보다. 그것도 FMD백신, 돼지열병 마커백신, 써코백신 등 핵심사업들이다.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인 관납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관납 제품은 곧 우수제품이라는 등식이 성립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8월 29일

 **박용호 본부장, 취임 직후 현장 행보**

**+** FMD 매몰지 · 인천 국제검역 현장 방문

지난 18일 취임한 박용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은 20일 FMD 매몰지와 인천국제공항 등 업무현장을 방문해 국경검역, 방역 등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경기 용인 소재 FMD 매몰지를 방문, 매몰지 실태를 점검하고 호우에 대비해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또 인천국제공항 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센터를 찾아 축산인 출입국 신고 현황과 소독실태 등 국경검역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본부장은 농축수산물 검역검사 업무가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질병 유입방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신문 / 2011년 8월 24일

 **'안전식탁' 사수 국민기대 적극 부응**

**+** 취임식 갖고 업무 돌입... 박용호 초대 검역검사본부장

박용호 초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지난 18일 안양 소재 검역검사본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집무에 들어갔다. 박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존 3개 농축수산물 검역·검사기관이 통합해 검역검사본부가 출범했다. 통합 취지를 살리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본부에게 주어진 사명이면서 임무이다” 고 강조했다.

**“소통과 혁신으로 통합 시너지 극대”**

박용호 본부장은 “출범 초기, 혼란과 어려움을 초석 다지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현장중심의 합리적



인 행정, 창의적인 마인드와 우수한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 검사본부'가 되도록,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본부장은 무엇보다 직원간 '소통'을 피력했다. 그리고, 출신기관별 편가르기와 차별이 최대 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우리는 '검역검사본부'라는 한배를 탔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원끼리 싸우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배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박 본부장은 "과거보다는 미래, 개인과 조직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 마인드다. 부서간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장 및 어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을 소명으로 꼽았다. 그럴려면, FMD·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질병을 막고, 철저한 위생관리, 국민의 공중보건 확보,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등 검역검사본부 임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직이 통폐합되면, 직원 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검역검사본부는 오히려 늘었어요. 역할과 기능이 막중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기대도 매우 크고요." 박 본부장은 "그간 많은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검역검사본부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기존 업무에 안주해서는 결코, 국민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변화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열정을 검역검사본부 발전에 쏟아붓겠습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8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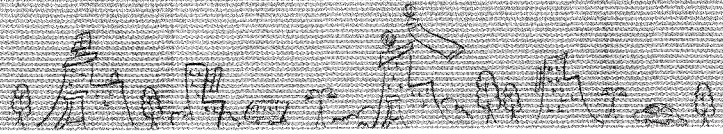
## 1년 낮잠 개정안, 8·9월 국회서 열매구 찾아야

### ■ 점검 / 수의사처방제 어디까지 왔나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소위서 계류...내년 5월 자동폐기  
수의업계 "사료내 항생제 금지정책 뒷받침...시행돼야"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수의사처방제.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될 만하면, 말썽이 생기고, 또 다시 원점이다.

지난해 9월 6일 심재철 의원 외 15명 의원은 수의사처방제 시행을 골자로 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쟁 등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지난 6월 21일에야 보건 복지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 상정됐다. 하지만, 통과는 커녕, 다른 계류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아직 계류중이다. 수의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6월 21일 농림수산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 상정됐다. 여기에서는 심의됐지만, 설명 부족으로 '계속심사'로 결정됐고, 계류상태로 남겨졌다.

약사법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5월, 제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그전에 처리돼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의 등 입법과정을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수의사처방제는 이번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수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의사처방제는 관련 축산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조율을 마친 만큼, 당위성을 재론할 단계는 지났다”며, “현재는 약사법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정부가 발표한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두 차례나 정책발표를 통해 2011년부터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항생제의 사료첨가가 금지된 상황이다. 항생제의 사료첨가 금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수의 전문가들 지적이다. 여기에 입법 지연으로 인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의사처방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도 국회 및 정부관계자들의 발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8월 16일



**박 용 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구현 최선”**



기존 3개 농축수산물 검역·검사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초대 기관장으로 취임한 박용호 본부장은 지난 18일 취임식에서 “출범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기관 초석을 다지는 동력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박 본부장 특히 “통합출범의 취지를 살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검역검사본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평소 '합리성과 소신'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자타가 인정하는 농축산식품 전문가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한림원 주관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과학적인 루머에 적극 대처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국무총리실 및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식품과 축산분야 정부위원회, 연구사업 등에도 참여한 바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을 만나 향후 검역검사본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검역검사본부 출범의 의미는.

A.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통합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라는 거대조직으로 거듭나게 된 동기는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수산물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의 검역과 방역 및 위생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이다.

검역검사본부는 국경검역·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축수산물 물가불안·가축질병 발생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점증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된다.

통합 출범을 통해 구제역·HP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유입을 방지하고 '농장·어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식품의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Q.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은.

A. 앞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과 결과만을 보고 합당하게 평가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들어 검역검사본부 전 직원이 수궁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역검사본부의 시대적 소명은 가축과 물고기를 비롯한 동물과 각종 식물의 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와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공중보건 확보, 국가 재난형 동식물 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가 주된 임무다. 안으로는 이 목표를 위한 우리 모든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밖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검사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원천봉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미력하나마 본부장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하고 산업체와 학계, NGO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함께 공조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본부의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먼저 단순

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시너지 효과라는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 부서간 소통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신설 조직은 주위의 기대를 받는 만큼 하루 빨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맡은 바 업무 전반에 걸쳐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개인과 조직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 그간 각 부서가 추진해왔던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로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직원들도 본부장의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3개 기관 각각의 직원이 아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주인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과 단결의 장을 일구어가는 주역으로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Q. 검역검사본부의 수장으로서는 포부는,

A.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행정, 창의적인 마인드와 우수한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세운 것은 검역검사본부의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이러한 통합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기대에 부응해 기관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을 각오를 갖고 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8월 26일